

중·고등학생 진로선택의 희망 사다리 '내 꿈을 job아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환 전주공고, 기린중-덕일중 '진로멘토링'

전주공업고등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최근 전주공고 기린중-덕일중 진로멘토링'을 실시했다.

'내 꿈을 job아라!'는 전주공업고등학교, 전주기린중학교, 전주덕일중학교가 함께하는 중학생·고등학생 진로동아리 연합체로 2015년 구축되어 4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진로선택의 희망 사다리가 되고 있다.

특성화고인 전주공고에 입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이 전주공고 방문을 통해 6개과 진학과, 토목과, 기계과, 전기과, 자동차과, 전자과)를 직접 라운딩하고, 전공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린중학교와 덕일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주공고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선배들과 중학생들이 1:2 멘토-멘티로 연결 되었다.

2018년 4월 학교 라운딩(6개과 탐방, 100주년 기념관 탐방, 결연식)을 시작으로 6월에는 지역사회 내 기업체 탐방, 7월에는 도내 특성화 대학 탐방, 8월에는 친선 체육대회 및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 꿈을 job아라!' 진로멘토링은 특성화고에 진학을 희망하거나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성화고에 관련 산업체 및 현장의 다양한 전공 직업군들에 대해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전주공업고등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최근 '전주공고-기린중-덕일중 진로멘토링'을 실시했다.

또한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교 적응을 돋우고 선·후배간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진로선택의 순간에 교과 종

심의 지식편증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험해 볼수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동진 면민의 날 '감자와 팔기마을 작은 음악회'

제5회 동진 면민의 날 '감자와 팔기마을 작은 음악회'가 지난 14일 동진초등학교 강당에서 펼쳐졌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동진면민과 출향인 내·외빈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면민의 장으로 선정된 효열장 박병용씨, 공의장 김경훈씨, 산업장 심영구씨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전 동진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인 박상호 씨가 공로패를 받았다.

허재현 동진면민의 날 추진위원회는 대회사를 통해 "이번 축제의 목적은 동진면민이 함께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이라며 "면 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서 앞으로 우리 동진에 희망찬 미래 신성장 발전 동력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각오를 다렸다.

한편 이날 축하무대에서는 인기가수 축하공연에 이어 9개리 14명의 주민 가수가 그동안 준비한 노래실력을 뽐내며 또 다른 불거리를 제공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 회의

고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고부파출소(소장 김용철)와 이장협의회(회장 김기수)에서도 참석해 복지시각지대 밭굴 등을 위해 협력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충북 모녀사건과 정신 질환자 살인사건 등 사례 중심으로 지역복지문제 사전 예방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어린이 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5월 4일 열릴 예정인 '세대 공감! 효 한미당'을 고부초등학교와 연계, 개최와 관련한 사항 등을 협의했다.

고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살피고 돋는 일에 적극 앞장서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복지시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면민모두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진안군,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단 발대·멘토 위촉

진안군은 최근 마을민들기센터에서 귀농귀촌 희망자와 초보 귀농인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단 발대식과 멘토 위촉식을 가졌다. 멘토는 각 읍·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 멘토 9명과 귀농귀촌인의 119 도우미 역할을 하는 전문 멘토 2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역 리더와 귀농귀촌 선배 총 11명을 위촉했다.

멘토단은 귀농준비 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필요한 기본인식 제고 주택 및 농지 정보 제공, 작목선택, 영농기술 등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멘토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인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무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ITQ 자격증 준비반 운영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진원)는 오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취업기초소양교육 컴퓨터 ITQ 자격증 준비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무주군에 거주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청소식당서빙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고 정규직 취업이 어려웠던 결혼이민자에게 취업기초소양교육 컴퓨터 ITQ 자격증 준비반'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술, 지식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계획했다.

올해 교육은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배움의 과정으로 글자편집과 표 만들기, 그래프 사용법, 도형편집등 한글의 기본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기초적인 문서작성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기존 디지털세대와 정보기술의 격차를 줄이고 컴퓨터 기술을 습득해 개인의 취업능력향상과 동시에 한국의 디지털 문화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무주군 결혼이민자들에게 전문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주군에 거주한 다문화여성의 취업환경을 개선하고 취·창업에 대한 개인의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문직 일자리 창출의 시작이 되는 취·창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길 소망한다.

취업기초소양교육 컴퓨터 ITQ 자격증 준비반'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70-4230-8707)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순창군 풍산면 올해 첫 모내기 시작

순창지역의 올해 첫 모내기가 순창군 풍산면 박준원 씨의 논 3.9㏊에서 지난 14일 시작됐다.

비가오는 날씨에서 진행된 이날 모내기는 삼촌리 도치마을 앞 논에서 운관벼와 할벼를 심으면서 시작됐다.

이날 모내기 행사에는 마을 주민과 면 직원들이 함께 하면서 올해 첫 모내기를 축하하고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진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마이산 벚꽃 버스킹 공연

진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생문동)가 15일 북부 마이산 가위박물관 앞에서 상춘객을 향한 벚꽃 버스킹 공연을 올렸다.

당데쿵 장고놀이, 시조창과 민요 그리고 대학생들로 구성된 록밴드 등 총 5팀이 1시간 30분기량 공연을 펼쳤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 북부마이산을 통해 오르는 관광객과 남부마이

산을 거쳐 내려오는 이를 사이에 자리 잡은 미니 공연이었지만 신명나게 울리는 팽과리 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상춘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일렉기타, 키보드, 드럼, 베이스로 구성된 공연에 전통악기인 팽과리와 징이 세우는 퓨전음악이 시작되자 관객들의 흥은 최고조에 달했다.

가위박물관을 찾은 한 관객은 매주 이런 공연이 있는지 궁금해 하며, "동·서양을 망라한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가위 1,500여점도 보고, 공연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생문동 관계자는 "많은 준비를 통해 이쉬움이 남지만 마이산을 찾은 관객들에게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해 즐거움을 줄 수 있어 앞으로 자주 이런 공연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